

# 한국 가족문제성향과 가족치료적 접근

송성자\*

## < 목 차 >

- I. 서 언 :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II. 가족문제에 대한 관점과 원인적 요인
- III. 한국 가족문제의 성향
- IV. 가족치료 실시현황
- V. 결론: 가족치료접근을 위한 제언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은 유교적 가족관을 근거로 가족문제와 가족윤리가 우리의 행동과 생활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과 친척의 연대와 책임의식, 상부상조의식 등은 가족의 욕구충족,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의 예방과 치료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사회변화는 소가족화, 핵가족화 등과 같은 가족구조적 측면의 변화, 주요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기능의 부분들이 사회제도로 이전, 평등사상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현상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가족의식의

---

\*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변화 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가족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문제를 발생하게 하였다.

현대사회의 가족문제는 속성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가족성원의 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가족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제한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문제의 해결과 가족제도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는 가족성원과 가족 자체의 노력만 아니라 전문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서구사회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가족제도의 중요성과 가족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가족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아울러 가족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가족치료 접근방법이 발달하였고, 1970년대부터는 활발하게 보급되었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부터 가족치료접근법이 소개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부터는 부분적이지만 연구활동이 활력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의 증가와 심리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욕구에 대하여 기존의 상담방법으로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문화배경과 가족문제의 속성을 근거로하는 한국적 가족치료모델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적 가족치료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이론을 중심으로하는 연구, 상담을 필요로하는 내담자들의 성향, 일반적인 한국 가족문제의 속성, 가족상담자들이 필요로하는 교육과 훈련 등에 관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론을 중심으로하는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가족상담 내지는 가족치료의 실시상황, 공통된 가족문제의 성향, 내담자의 요구, 상담자들의 가족치료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배경등 실제적인 측면에 관한 조사연구를 근거로하는 한국적 가족치료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는 매우 적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가족치료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내용, 이혼원인, 아내 구타행위 등을 분석하므로 한국 가족문제의 성향을 파악한다. 둘째, 가족치료 실시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내담자들의 속성과 상담욕구를 파악한다. 셋째, 가족상담자들의 가족치료 교육 및 훈련배경과 가족치료에 관한 욕구를 파악한다. 다섯째, 기초연구를 근거로 한국 문제가족을 위한 가족치료 접근법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1970년대 이후부터 실시한 가족상담과 관련된 통계자료, 연구결과, 조사보고 등의 기존자료를 근거로 실제적인 측면을 고찰하려고한다. 자료수집에있어 기존자료를 근거로하기 때문에 지역의 제한과 내용분류에있어 영역의 불일치성, 통계자료의 타당성, 등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하는 상담결과의 내용을 근거로하고있는 제한점으로 인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설명력이 약하다고본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하려는 기존의 통계 및 조사연구자료가 20여년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의 상담자료를 근거로 전체적인 문제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전국적인 규모의 상담실시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상담자들의 교육 및 훈련배경과 상담자들의 가족치료욕구를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기관에 가족상담을 요청하여온 내담자들의 속성과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담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내담 혹은 전화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설명한 것을 근거로 자료를 수집한 통계자료이므로 실제의 문제를 가장 잘 반영하고있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문제의 성향을 설명하기위하여는 기존의 통계 및 연구결과자료를 사용하려고한다. 기초자료는 가정법률상담소(1956-1985)의 통계자료, 중앙가정상담소의 상담내용분석(1970-1990), 여성개발원(1991), 여성백서(1991), 통계청(1991), 김정옥(1993)의 이혼원인 조사연구, 태화정신건강상담실(1983- 1992), 한국 성폭력상담소(1993), 사랑의 전화(1993),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2), 신나는 전화(1993), 등에서 실시한 상담통계분석에 관한 자료들이다.그리고 가족치료실시 현황은 1991년 여성개발원에서 가족상담사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가족상담사업 실시현황 조사결과를 근거로 설명하려고한다.

## II. 가족문제에 대한 관점과 원인적 요인

### 1. 가족문제에 관한 관점과 양상

가족문제를 좀더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가족문제의 주요 원인간에 상호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가족치료 접근을 위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되어 가족문제에 관한 관점과 양상을 간단히 설명하려고한다. 가족문제를 보는 이론적 관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족체계와 가족성원과의 관계를 다루는 미시적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구조와 가족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가족문제를 사회문제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시적 관점이다. 가족문제에 대한 미시적 관점은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기능, 가족생활주기 등과 관련된 가족문제를 다루는 접근방법이다. 이에 반하여 거시적 관점은 산업화와 현대화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구조와 같은 가족외적 요인과 가족과의 관계를 근거로 하여 가족문제의 성격과 요인을 설명하려는 관점이다.

가족문제를 가족체계와 가족성원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미시적 관점을 갖고있는 학자들은 가족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족내적 요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가족치료 접근법은 주로 미시적 관점을 기초로하고 있으며, 주로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관계 그리고 가족생활주기에 초점을 두고 가족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체계이론을 기초로하며, 가족을 하나의 사회체계로서 부분들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고 부분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총체(entity)로 보고, 가족내적 요인들은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가족문제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요인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가족역기능과 가족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미혼모가족과 편부모가족과 같은 구조적 결손가족은 가계유자,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가족기능상의 문제, 가족관계의 재조정, 상실에 따르는 심리적 문제 그리고 가족생활주기상의 발달과업 미성취 등의 문제 등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내적 요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가족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는 요인들의 역기능 뿐만 아니라 각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야기되는 역기능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가족문제를 사회문제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Shepard, Voss, Richter, Stark 등의 학자들은 주로 가족을 둘러싼 여러가지 사회구조 및 사회체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가족문제를 설명하였다(Skolnick & Skolnick, 1977, p.10). 이들은 경제적, 기술적 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현대화가 생활의 모든

측면 즉, 물리적 현상,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생활행태, 세상을 보는 관점, 일상생활 양식, 가족생활의 정서적 측면,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가족은 고유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이 크게 감소하고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보고, 가족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과 같은 가족외적 요인을 고려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문제는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기능, 가족생활 주기라는 가족내적 요인과 경제적 불평등, 고용기회의 제한, 보건의료기회의 제한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들의 직접 간접영향을 받고있는 것을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 폐쇄체계가 아니라 개방체제이기 때문에 가족내적 요인간의 상호작용, 가족외적 요인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들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가족문제가 발생하기도하고, 가족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문제를 좀더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가족내적 요인과 가족외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중요한 관점은 가족문제에 관한 정상성의 개념이다. 가족문제는 정상성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고, 정상성이란 가족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구조적이거나 기능적인 유용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정상성은 목적과 상황에 따라 변화 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 어떤 한 측면에서는 정상적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역기능적일 수 있다. 그리고 정상성의 개념과 기준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변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가족문제를 일으키는 가족내적 요인으로서 가족구조 측면을 중요시하는데, 우리나라 가족의 구조의 형태는 1960년대 이후 핵가족이 보편화됨과 동시에 확대가족이 감소하고, 독신가족과 과도기가족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족, 혼전동거가족, 편부모가족, 독신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유형이 등장하게 되었다(공세권 외, 1993, p.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pp.27-47, 한국여성개발원, 1990, p.1). 그리고 가족규모에 있어서는 소가족화의 경향이 강해졌으며, 세대구성면에 있어서는 1세대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2세대, 3세대 가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편부모가족, 이혼 및 재혼가족, 노인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족, 독신가족, 미혼모가족, 혼전동거가족, 별거가족 등과 같은 가족기능에 대한

취약성을 지닌 가족유형들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족유형의 변화와 발생은 빈곤, 가족해체, 가족성원의 일탈행동과 심리적 문제, 자녀와 노인 등의 가족성원양육 및 보호의 문제 등이 심화되거나 새로운 양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가족문제에 관한 미시적관점과 거시적 관점을 근거로할 때 그 원인은 초점을 두는 측면에 따라 설명을 달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증상적인 가족문제를 나타내는 것들은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관계, 사회환경, 가족생활주기, 사회자원 등과 상관관계속에서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의 성향은 일시적인것 또는 영구적인것, 개인적인것 또는 가족전체와 관련된것, 물리적인것 또는 비물리적인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영주(1990,p.284)는 가족문제를 가족의 조직이 약화되고, 기능상의 장애가 있는 병리가족, 이상가족, 부적응가족, 일탈가족, 가족아노미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족 또는 부적응 가족은 가족성원의 의식, 태도, 가치관,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상호관계가 결여된 상태의 가족으로 보았다. 즉 가족성원간의 밀착성이나 연대성이 약하여 의사소통과 역할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역할갈등, 부적응, 부조화 등의 발생에 초점을 두었다. 이호재(1979,p.299)는 가족문제 원인으로서 가족성원의 감원과 가족성원의 증원과 같은 가족구조변화와 문제행위와의 관계에 관심을 두었는데, 가족성원의 감원과 증원 그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다는 감원이나 증원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장애, 가족구조의 재조정, 적응과정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심의 초점이 있다. 가족문제에 관하여 정의하고 가족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내외 학자들의 자료를 근거로할 때, 초점은 다르지만 가족내적인 요인과 가족외적 환경적인 요인,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관계, 가족생활주기와 관련하여 가족문제를 설명하는 경향이있고, 대부분의 가족치료 이론들은 이와같은 측면에 관심을두고 가족문제를 사정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적으로는 가족문제 발생요인들이 상호연관되어있고, 몇개의 요인들이 중복되어있기 때문에 표면상에 나타나는 가족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족문제를 크게 가족의 내적 요인과 가족외적요인,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가족밖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구분할 수 있고, 가족내적 요인은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관계,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원인을 설명할 수 있으며, 가족외적 요인

은 경제적 불평등, 고용기회 제한, 보건의료 기회의 제한, 주택문제, 교육기회제한, 인구역제정책, 기타 사회자원의 제한 등과 관련하여 발생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가족치료에서는 문제를 좀더 이해하기위해 전체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만 치료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주로 가족내적인 측면에 초점을두고 접근한다.

## 2. 가족문제의 원인적 요인

사회와 가족의 변화는 사회문화에 따라 그 측면과 정도상에 차이가 있다. 현대 사회의 가족연구학자들이 사회변화를 보는 관점과 초점은 매우다양하다. 그러나 관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중심으로하는 변화에대한 관점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기능의 변화 및 상실, 정서적 기능강화의 필요성, 가족관계변화, 여성해방, 가족해체, 일탈행동 등을 들수 있다(송성자,1989,p.51).

이와 같이 가족을 중심으로하는 가족경제, 가족구조 및 가족형태, 가족생활주기, 가족의 욕구, 가족의 기능, 가족관계 측면에서의 변화와 그 요인들은 개인, 가족, 집단 문제의 발생원인이 되기도한다. 가족구조와 형태의 변화에 있어서는 소인가족, 핵가족, 별거가족, 무자녀가족, 편부모가족, 노인가족, 청소년가장가족, 독신가족, 미혼모가족 등을 예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빈곤가족의 발생, 가족해체, 일탈행동, 심리적 정서적 문제 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있다.

그리고 가족주기의 변화는 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연장되는것 뿐만 아니라 적은 수의 자녀들이 결혼하여 분가하는 경우 노부부가족을 형성하면서 그들이 당면하는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문제는 심각하여 최근에는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다. 그리고 가족관계와 욕구측면에서의 변화는 집과의 관계, 배우자선택,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고부관계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집을 중심으로하는 가족의식은 가족외의 사회적 조건과 가족내적 조건의 변동으로 변질되고있다. 다시말하면 가족관계를 지속시켜주고, 개인에게 소속감, 자기-존재가치감정, 자기-존중감정을 갖게하여주는 집의 본질적인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현대사회에서의 가족해체, 인간소외, 청소년문제, 일탈행동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가족관계를 지배하여온 가족관, 윤리관, 도덕관, 가치관 등은 민주적 사고방식, 평등의식, 독립의식 등에 대한 교육으로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가족성원간에 이기적인 입장을 고집하는 경우 가족원간의 심리적 압박감, 저항감, 긴장감 등을 유발시키므로 가족성원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내지는 이혼, 자녀들의 비행이나 이탈행동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회의 기본 단위이다. 가족은 개인에 대하여는 생활과 생존, 성적 욕구충족, 보호와 지지, 사회화 및 사회적 일체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는 종족의 유지, 성의 통제, 문화의 보존과 전승, 신분귀속 등의 기능을 한다(김영모,1987,p.19). 이러한 가족기능에 있어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하고 있지만 전통사회보다 가족기능의 영역이 축소되고 기능이 점차로 약화되고 부분적으로 상실되고 있다. 예로서 사회화 교육과 사회통제기능이 약화되고, 가족을 중심으로하는 결속력과 소속감도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 행동규범, 사회통제, 행동양식 등을 학습하는 가족기능의 축소화 또는 기능의 상실로 가족성원간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 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유지 발전시키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공급이 부족 할수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인들의 속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적 태도, 쾌락주의적 허영적 가치추구, 물질만능적 사고방식, 개인주의적 경제구조, 새로운 성적 매력 등에 관한 가치를 통제하는 가족의 통제능력이 약화되거나 상실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회적 현상은 구체적으로 가족성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행동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탈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도록 방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와같은 것들이 청소년문제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가족문제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현대사회의 가족문제는 빈곤과 질병에 초점을 두어온 것과는 많은 차이를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과 가족의 욕구가 물질적인 것보다는 심리 정서적인것에 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말론하고 가족생활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가족치료 접근에서는 가족체계가 가족성원들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문제발생원인을 제공하고, 문제를 극복 내지 치료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하는 체계로 본다.

### Ⅲ. 한국 가족문제의 성향

가족문제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상담을 요청하여온 사람들의 직접적인 진술을 근거로한 부부문제와 가족문제, 이혼의 원인 그리고 아내구타에 관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가족문제 성향을 설명하려고한다. 이와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은 내담자 또는 경험자가 문제에 직면한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족문제성향을 파악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내구타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최근에 아내구타가 주요한 부부문제로 대두되고있고, 아내구타원인 분석이 한국의 가족문제성향을 좀더 설명해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1. 상담통계자료를 근거로하는 가족문제의 성향

한국가족에서 발생하는 가족문제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중앙가정상담소(1991)에서 20년간의 상담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내용, 여성개발원(1991)에서 전국적으로 상담사업을 실시하고있는 1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결과, 태화정신건강상담실의 상담분석(1993), 사랑의 전화(1993)의 상담내용 자료를 근거로 고찰하려고한다. 먼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서울시 중앙가정상담소의 통계자료와 1993년도 사랑의 전화에서 실시한 상담내용을 분류한 통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가정문제의 성향분석

단위 : %

상담소	중앙가정상담소				사랑의 전화
	1970-1975	1975-1980	1981-1985	1986-1990	
년도					1993
부부문제					
배우자 부정	36.4	27.5	23.5	23.5	18.7
유기별거	16.6	6.4	2.9	3.1	1.3
이혼문제					5.5
성격차이	14.1	9.0	14.4	13.2	
가치관차이	2.7	4.1	-	3.9	10.7
성적불만	2.0	-	-	2.5	6.6
주벽, 폭행, 학대	6.8	11.0	7.7	8.0	5.2
가출	3.3	10.1	9.7	(처) 4.1 (남편) 2.6	2.7
가족문제					
자녀문제	-	-	15.7	13.2	24.4
고부갈등	8.9	11.3	10.7	13.9	8.6
부모갈등					7.5
형제갈등					5.9
경제문제					1.5
친척갈등					1.4
정신건강	0.3	5.5	3.6	5.0	
신체장애		2.9	-	-	
기타	8.3	10.6	9.3	7.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서울시 중앙가정상담소 상담분석(1991)

사랑의전화 상담분석(1993)

<표1>에 의하면 부부문제로서 20년여년에 걸쳐 배우자의 부정관계가 가장 심각

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간의 성격차이와 가치관 차이, 남편의 주벽, 폭행, 학대의 문제 등이 주요한 문제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의 전화 통계자료에는 부부관계에서 성적 불만을 부부문제로 제시한 것이 의미있게 나타났다. 여기서 성격차이와 가치관 차이로서 표현하고있는 것이 어떠한 구체적 행동인지 알 수는 없으나 상호간에 차이점을 조절하거나 적용상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 문제로 분류한것 가운데 자녀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년대별로 순위에 큰 변화없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부갈등의 문제는 핵가족화되고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개발원에서 1991년에 상담사업을 실시하고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상담내용의 성향을 도표화하면 <표2>와 같다.

상담 가족문제의 성향

<표2>		단위: %
구분	내용	상담비율
가족관계문	부부관계	32.2
	부모-자녀관계	32.1
	형제자매관계	8.6
	고부관계	17.1
	조부모-손자관계	3.9
	가족-동거자관계	6.1
	계	100.0
가족문제의 성향	경제 무능력	30.6
	자녀의 비행문제	18.4
	폭행/학대/주벽	14.0
	가출	6.5
	배우자의 부정	7.8
	정신건강	12.8
	자녀교육/이성관계	9.9
계	100.0	

자료 : 한국 여성개발원(1991),p.37

<표2>에 의하면 가족문제가 부부관계 문제와 부모-자녀관계의 문제비율이 비슷하며 높게 나타났으며, 고부관계 문제, 형제자매관계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문제의 성향을 볼 때 경제무능력, 자녀의 비행문제, 남편의 폭행, 학대, 주벽, 정신건강이 주요문제인것을 볼 수 있다. 1990년도의 통계청(1992)자료에 의하면 3세대 가족이 전국적으로 12.2%인 것에 비해, 고부관계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표1>에 보면 17%이상을 차지하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동거만이 아니라 분가시에도 고부관계 문제가 발생되고있는 것을 보여주고있으며, 주거의 형태보다 성인자녀와의 심리정서적인 비분리가 더욱 문제가 되고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담통계에 의하면 가족문제의 성향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 (1) 부부중심적인 문제가 지배적이지만 자녀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다.
- (2) 배우자 부정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 (3) 부부관계에서 성격차이와 가치관 차이를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 (4) 고부갈등이 주요한 가족문제가되고있다.
- (5) 남편의 폭행, 학대, 주벽 등의 행동적 문제가 주요시된다.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 배우자부정은 주로 남편의 부정관계를 말하고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한국 가족문화를 근거로할 때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도과 가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부권사회, 남존여비사상, 남자들의 부정관계가 용인되는 윤리관, 여자에게 불리한 이혼조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의 많은 요인들이 남성의 부정관계를 통제하지 못하고있다고도 본다. 현대한국 가족이 표면적으로는 핵가족화와 부부중심적인 가족생활로 변화하고있으나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는 것과, 고부갈등의 문제가 대두되고있는 것은 한국적인 가족관과 가족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2. 이혼의 원인분석을 근거로하는 가족문제의 성향

이혼의 사유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부부관계에서 가장 문제시하는 문제의 성향을 좀더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가정법률상담소에서 1977년 부터 1986년 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이혼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표3 > 이혼원인분석

이혼원인	비율 : %		
	1978	1982	1986
부정행위	49.4	47.3	47.3
악의의 유기	18.4	19.4	21.4
본인이 학대받음	7.6	7.9	4.6
존속이 학대받음	7.4	11.1	13.5
3년 이상 생사불명	7.9	8.6	5.6
기 타	9.3	5.7	7.6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 이태영(1987), 한국의 이혼율연구, p.36

가장 심각한 부부의 문제로서 이혼의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악의의 유기 또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가족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존속 즉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학대받은 것을 근거로 이혼을 제기한 것이다. 이것은 결혼이후의 생활에서 노부모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배우자가 자신의 노부모에게 잘해줄 것을 기대하며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표1>에서 고부갈등이 중요한 가족문제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1992)의 자료를 보면, 이혼의 사유는 부부불화, 가족간 불화, 건강문제, 경제문제로 대별화하였고, 부부불화는 1975년에 64.2% 정도였던 것이 1990년에는 82.1%로 증가한 반면에, 가족간 불화는 8.5%였던 것이 3.9%로, 건강상 이유는 5.2%에서 1.7%로, 경제문제는 5.2%에서 3.0%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혼의 이유가 고부갈등, 친척간의 문제,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가족이 해체되던 것은 점차로 감소하는 반면에, 부부 당사자들의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표1>과 관련하여 분석할 때 고부갈등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부갈등이 이혼사유가

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차원에서 해석 할 수 있으며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핵가족화와 개인중심적인 생활을 하고있으면서도 시집식구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계속 가족문제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는 것이다. 즉 물리적인 동거가 고부갈등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별거시에도 간섭과 관여는 지속될 수 있으며 갈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있다.

김정옥(1993, p.43-55)의 실제 이혼한 여성 129명과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표4>과 같은 원인들을 볼 수 있다.

<표4> 이혼의 원인

		비율: %	
원 인		여자(%)	남자(%)
이성관계	배우자의 외도	11.0	6.3
	본인의 외도		2.5
	소계	11.0	8.8
성격관계	성격차이	12.6	12.5
	음주	5.9	5.0
	불신		2.5
	신체적 폭력	6.9	
	의치증	4.9	
	도박	1.8	3.8
	정신적 학대	5.6	1.3
	도벽	0.8	
	불성실	0.8	
	거짓말	4.3	1.3
	생활구속	5.1	5.0
	소계	48.7	31.4
	경제관계	경제파탄	7.4
맞벌이강요		0.2	
낭비		2.1	10.0
아내가 남편몰래 빚집			1.3
소계		9.9	15.1

자녀관계	무자녀	3.1	1.3
	자녀양육 및 교육불일치	1.5	3.8
	남아선호사상	1.0	
	소계	5.6	5.1 -
불일치	사상불일치, 종교문제	3.3	3.8
	아내역할불충실		13.8
	결혼에 대한 회의	0.8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결혼	0.8	
	성장과정 차이	0.8	
	소계	5.7	17.6 -
시가족 친정가족	혼수문제	1.0	
	시부모와 시가족의 간섭	6.2	
	및 학대		
	시부모를 잘 모시지 않음		2.5
	장모의 심한 학대		1.3
	친정부모학대	0.5	
	시부모와 한방사용	0.2	
	소계	7.9	3.8 -
신체관계	신체결합	0.5	
	질병		2.5
	소계	0.5	2.5 -
애정관계	애정없음	8.2	5.0
	남편무시		1.3
	아내무시	0.5	
	가정에 무관심	0.5	1.3
	소계	8.9	7.6 -
성관계	성적불만	1.3	1.3
	소계	1.3	1.3
유기	배우자가출	0.2	6.3
	별거장기화		1.3
	소계	0.2	7.6
총계		99.7%	100.8%

자료 : 김정옥(1993), 이혼과 가족문제, pp.46-49

위의 표를 보면 이혼의 원인으로 여성의 경우, 성격차이와 배우자의 외도가 두드러지게 많고, 애정없음, 신체적 폭력, 시부모와 시가족의 간섭 및 학대, 배우자의 음주, 정신적 학대, 생활구속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의 경우 아내역할 불충실한 것과 성격차이, 아내의 낭비가 두드러진 이혼의 원인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가출, 배우자의 음주, 생활구속, 애정없음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입장에서 이혼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과 남편의 입장에서 이혼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으로는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생활구속, 애정없음, 음주 등이 있다. 그리고 여자의 입장에서만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신체적 폭력, 정신적 학대, 경제파탄, 시부모와 시가족의 간섭 및 학대 등인 것을 볼 수 있다고, 남편의 입장에서만 주요한 요인인 것은 아내의 낭비, 아내역할 불충실, 아내가출 등을 볼 수 있다.

이혼의 원인적인 요인들을 근거로 가족문제의 성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내의 입장에서서는 배우자의 외도, 성격차이, 음주, 신체적폭력, 의처증, 생활구속, 경제파탄, 시부모와 시집의 간섭 등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
- (2) 남편의 입장에서서는 배우자의 부정, 성격차이, 음주, 생활구속, 낭비, 아내역할불충실 등을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 (3) 이혼의 중요한 원인은 부부상호간의 관계 중심적이다.
- (4) 여자의 입장에서 시집과의 관계가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7.9%로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 (5) 자녀문제는 부모가 많은 관심을 갖는 가족문제이지만 이혼의 주요한 원인은 되지않는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때문에 이혼을 결심못하는 경우가 89.4%인것을 한국 갤럽조사연구(1983,p.121)에서 볼 수 있다.

### 3. 아내구타행위 분석을 근거로하는 가족문제의 성향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는 구타당하는 아내, 성적학대 받는 여성들이 자기보호를 호소하거나 보복행위를 함으로서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이러



한 문제는 사회문제보다는 사적인 가정문제, 부부문제로 보았고, 전통적인 여자천대의 의식구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법과 사회, 병원, 상담자 등에 호소해도 심각성을 인정하고 보호치료받기 보다는 희생자가 문책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타의 원인과 구타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태도는 그 사회의 가족문화를 반영하고 가족문제의 성향을 나타내고있다고 본다. 한국에서 결혼 이후 아내들의 구타경험과 구타의 원인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표5 > 여성의 구타경험

단위: %

조사주체	년도	대상	내용	비율
여성의 전화	1984	서울	구타당한 경험	42.2
한국결혼조사	1983	전국	구타당한 경험	61.0
연구소				
한국여성	1980	도시일반,	구타당한 경험	28.2
개발원		영세주민		

자료 : 여성백서(1991)에서 재인용,p.97

사랑의전화(1994), 여성의전화 개원1주년 기념 보고서

조사주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많은 아내들이 구타경험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2>에 의하면 내담자의 14%정도가 남편의 학대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아내들의 거의 반 정도가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타의 빈도와 정도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하고, 남편과 부인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구타원인과 구타행위특징에 관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표6> 남편이 말하는 아내구타 이유

N=70

이유	수	비율
부인의 품행 의심	25	36
부인이 피해를 준다고 생각	1	2
남편의 외도를 이해못함	22	31
사사건건 시비	56	80

자료 : 김광일(1988), 가정폭력, p.153

<표7> 아내 구타하는 남편의 행동특징

N=70

행 동	수	비율
음주 후	31	44
구타 후 강제 성교	38	54
자녀 앞에서 아내구타	55	81
구타와 친절의 반복	56	80
아동구타	45	70
지독한 폭언	65	93
문란한 성생활	38	59
폭주	34	49
아내의 재정박탈	66	94

자료 : 김광일(1988), 가정폭력, p.153

<표6>를 볼때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이유가 남자중심적이고, 자신이 부정한 행위를 하여도 이해하고 비난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강요하며, 협박하는 행위로 구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표7>에서는 아내의 인격과 욕구 또는 자녀앞에서 어머니로서의 권위 등은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종속관계로 아내를 대우하는 것이 나타나고있다. 차준구(1988, p.179)는 아내구타원인으로서 가부장적 가족제도, 남성위주의 경제제도, 여성을 차별하는 법제도, 등을 지적하고, 한국부부의 주종관계, 매맞는 아내가 사회에 호소해도 개입을 꺼리는 사회문화등을 설명하였다.

아내구타와 관련하여 부부문제의 성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1) 아내를 구타하는 가족문제에는 남편들이 가지고있는 남성지배적, 여성복종적, 고정적인 성역할, 여자천대, 남존여비적인 의식구조가 반영되고있다고 볼 수 있다.
- (2) 부부갈등의 가장 주요한 문제가 남편의 부정행위이며, 남편의 의도를 이해 못하는것이 구타이유가되는 것은 남성에게 성적자유가있고, 여성에게는 순결을 요구하는 이중 성윤리를 표현하고있다.
- (3) 남편이 아내를 구타할 때 아내의 재정박탈, 지독한 폭언, 자녀구타, 자녀앞에서 구타, 문란한 성생활, 구타후 강제성교 등의 행위는 부인의 인격과 자존심을 최대한 무시하는 행위로서 부부관계가 평등하게 인격을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고, 강자가 약자를 자기중심적으로 대우하고, 지배와 순종을 요구하는 주종관계임을 나타내고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상담 통계자료, 이혼한 사람들의 이혼원인과 아내구타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 가족문제성향을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가족문제성향을 설명할 수 있겠다.

- (1) 가족문제는 표면상 부부중심적 문제로 변화하고있으나 자녀문제에 관심이 많고, 노부모 특히 고부갈등의 문제에 많은 영향을 받고있다.
- (2) 부부갈등의 가장 주요한 문제가 남편의 부정행위이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의도를 이해못하는것이 아내구타이유가 되는 것은 남성의 어떠한 부정행위도 아내가 저지하거나 처벌하려는 것을 수용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평등한 지위에서 상호간에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3) 자녀문제 상담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면에 자녀문제에 대한 지나친 염려, 자녀의 문제를 가족문제와 분리시켜서 보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가족문제가 심화될 경우 희생양으로 표출되고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4) 고부갈등이 주요한 가족문제가되고있다. 고부갈등의 문제가 핵가족화되고 부

부중심적인 생활을 하고있음에도 중요시되는 것은 성인자녀가 결혼이후에도 노부모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하며, 자녀입장에서는 결혼이후에도 원가족과 심리정서적인 분화를 하기 어려운 가족과 사회문화를 반영하고있다고 본다.

(5) 남편의 폭행, 학대, 주벽 등의 행동적 문제가 주요시된다. 남편의 폭행, 구타, 학대는 그 원인이 남자중심적이고, 아내로서 존중시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나타내며, 가족과 사회에서 남자에게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여자에게는 순종과 복종, 희생과 인내를 강조하는 성차별적인 사회문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들에게는 남성지배권, 여성의 낮은 지위, 계층적인 성역할, 여자천대, 남존여비적인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영향을 주고있다고 본다. 그리고 아내는 구타를 당하므로 모욕감, 열등감, 무력감, 분노, 적개심, 공포, 불안, 등의 감정을 갖게되고, 장기간 계속될경우 우울증, 정신신체장애, 적응장애, 등의 증상을 나타나게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남편은 가해자, 아내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부부관계는 악순환적인 가족문제를 야기하게된다고 본다.

#### IV. 가족치료 실시현황

한국에서 실시하고있는 가족치료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인이다. 아직은 가족치료사의 자격기준이 없고, 가족치료를 실시하고있는 기관의 성격이 사회복지기관, 가정문제상담소, 아동상담소, 청소년상담소, 병원, 상담전문기관, 전화상담기관, 등으로 다양하고, 대부분의 경우 가족상담 내지는 가족치료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개발원(1991)에서는 가족상담의 요구와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상담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전국에 상담관련기관(종합복지관, 부녀회관이나 상담소, 아동상담소 혹은 아동복지관, 청소년상담소나 청소년회관 등) 총 295개 가운데 158개

기관, 상담실무자 총 615명 가운데 2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 대상에서 가족치료를 실시하고있는 병원, 주로 전화상담을 실시하고있는 기관((사랑의 전화, 생명의 전화, 여성의 전화, 등), 전화상담 혹은 내담자 상담을 하고있는 종교기관에 관한 조사연구는 배제되었다.

그러나 여성개발원의 조사연구는 한국 가족상담에 관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지역을 전국으로하였고, 상담업무를 실시하고있는 여러종류의 기관을 포함시켰으며, 조사내용이 실무자 중심적이어서 실제로 가족상담 현실을 파악하기에는 적절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연구는 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가족상담의 실태, 내담자의 가족배경, 가족상담 실무자의 교육 및 훈련배경, 가족상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려고한다.

## 1. 가족상담기관의 실태

한국의 가족치료발달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치료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이화여대와 몇개 병원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부터는 이화여대 부설 사회복지관,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등에서 연구지 발간 내지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가족치료 연구활동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는 가정법률상담소, 서울 백제병원의 가족요법연구소, 이화여대 가족치료 연구회, 한국 가족복지연구소, 가족치료 연구소 내지는 가족상담기관, 상담업무를 실시하는 각종 복지기관, 등이 개설되어 활발하게 연구활동과 서비스가 전개되었다. 1988년에는 정신의학, 사회사업, 임상심리, 간호학, 가정관리, 아동학을 배경으로하는 학자들과 실무진들이 한국가족치료학회를 창설하여 1년에 4회이상의 세미나와 워크샵 등을 주관하여 학회활동을하고있다.

현재 가족상담 내지는 가족치료를 실시하고있는 기관에 관하여 김창권(1994)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병원 신경정신과와 사회사업실, 이대 부설 사회복지관, 가족치료 연구모임, 한국 가족복지연구소, 한국가족학연구회, 태화정신건강상담실, 사회복지관, 한국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대화의 광장, 대한가족계획협회 청소년 상담실, 시·도 청소년 상담실, 부녀상담소, 서울청소년 육성회청소년회기관 상담실, 서울 YMCA

청소년상담실, 흥사단부설 청소년 연구원 상담실, 알콜상습예방교육과 상담, 카톨릭 사회복지회, 신나는전화, 사랑의 전화, 생명의 전화, 교회에서 실시하는 전화상담 등이 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1970년대 이후에 창설되었으며, 상담업무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들도 있으나, 많은 경우 지역사회서비스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실시하거나 병원에서 환자를 상담하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 가족상담 또는 가족치료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조사연구 대상기관 1587개 기관의 80%이상이 1970년대 이후 설립되었으며, 전체의 40%정도가 1980년대에 설립되었다. 설립재원은 국고보조(36.9%), 자부담(29.9%), 자부담/국가보조(28.7%), 민간후원(4.5%)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같은 상담관련 기관들은 비교적 전국적으로 설치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청소년 상담소나 청소년 회관은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노인 상담기관은 서울지역에만 4개소가 있고, 가정상담 기관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만 있을 뿐이다.

## 2. 내담자의 가족배경

일반적으로 상담을 받기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가족배경은 점점 다양해지고있으며, 내담자의 수도 증가하고있다. 주로 빈곤계층과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복지관이나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던 것은 현실과 차이가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내담자의 남녀 비율을 볼때 부녀상담과 아동상담기관, 그리고 가정상담 기관에 남자들이 40%이상 내담하여 상담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회관이나 청소년 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받은 비율이 여자(36.8%)보다 남자(63.2%)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남자 청소년들의 문제가 여자보다 더 많을 수 있고,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권위적인 사고와 태도로 자녀와 가정문제를 여자에게 일임하거나, 상담받는 것을 회피하거나 비협조적일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내담자의 남녀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것을 근거로 한다면, 남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부부문제, 자녀문제, 자신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있으며, 부부문제나 자녀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남편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참여가 필요할때는 상담에 응하고있는 경우도 증가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

연령계층에서는 청장년 계층이 많은데 이것은 노인이되기 이전이며, 부모연령층으로서 부부문제, 자신의 문제, 자녀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연령층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부녀상담 기관에 아동과 청소년이 42.7%, 아동상담 기관에 청장년이 청소년 비율과 같이 40.5%, 청소년 상담기관에 청장년이 23.9%, 가정상담기관에 아동과 청소년이 29.3%로 나타난것을 근거로할때, 많은 부모들이 자녀문제로 상담 받은 것으로볼 수 있다.

내담자들의 경제적 지위, 가족생활주기, 가족구조형태를 볼 수 있는 통계자료는 <표8>과 같다.

<표8> 내담자의 경제적 지위, 가족주기, 가족형태

단위 : %

구 분	종합복지관	부 녀	아 동	청 소 년	가 정	전 체
경제적 지위						
상	5.8	2.7	3.8	14.9	13.6	6.4
중	32.1	45.2	31.4	29.9	13.6	35.0
하	62.1	52.1	64.8	55.2	55.1	5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족주기						
신 혼 기	2.8	0.0	6.6	0.6	13.7	3.5
출산및 미취학기	12.4	7.3	19.3	2.6	29.0	12.9
자녀아동기	27.3	18.0	7.9	11.0	22.4	20.6
자녀청년기	27.7	22.5	39.5	54.0	20.2	29.4
자녀독립기	4.1	4.5	2.6	10.4	2.7	4.2
중년기	17.5	45.3	24.1	20.1	7.6	24.5
노 년 기	8.1	2.4	0.0	1.3	4.4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족형태						
편부모가정	24.8	23.8	28.8	41.6	29.1	26.8
이혼과정중	6.4	16.3	11.6	3.9	6.3	9.5
재혼가정	4.2	6.7	7.3	4.5	5.0	5.4
동거가정	6.6	0.9	3.4	0.0	3.8	3.9
소년소녀가장	22.3	6.4	15.8	7.8	1.3	14.9
노인단독가정	5.0	0.4	0.0	0.0	5.1	2.7
취업부부가정	11.6	9.6	4.3	9.7	5.1	9.6
일반가정	19.1	35.9	28.8	32.5	44.3	2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 여성개발원(1991),p.36

위의 <표8>에 나타나듯이 내담자의 경제수준이 하층인 경우가 58.6%이고, 중산층의 경우 35.6%이고 상층의 경우가 6.4%이다. 이것은 가족상담을 필요로하는 경제수준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복지관이나 상담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해석 할 수 있다. 내담자의 가족생활주기를 볼때 자녀청년기, 부부중년기, 자녀아동기가 두드러지게 많은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자녀문제 등으로 가족문제가 가장 발생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결혼초에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상담을 필요로하는 수는 많지 않다. 가족구조의 형태를 볼때 일반가정 이외에는 편부모 가정과 청소년 가장가족이 상담을 필요로하는 가족임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족구조에서 불안정한 요인과 역기능적인 요인을 갖고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들의 가족배경을 근거로 내담자들의 성향을 다음과 같은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 (1) 남자들의 상담요청이 증가하고있다. 청소년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다.
- (2) 부모들이 자녀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수가 많고, 아버지도 자녀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 (3) 내담자들의 경제수준은 다양하고, 중산층 이상이 증가하고있다.
- (4) 가족생활주기는 자녀청년기, 중년기, 자녀아동기의 순서로 나타났다.
- (5) 가족구조형태는 일반가정 이외에 편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가족상담 실무자의 교육 및 훈련배경

여성개발원에서는 가족상담을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상담에 있어서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보고, 가족을 단위로하여 가족의 문제에 실제 개입하는 조직적인 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인력, 재정, 기술, 지식)의 어려움으로 가족상담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은 매우 적었으며, 상담실무자의 교육배경과 관심정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체계적인 가족상담은 실시하지 못하여도, 개인의 문제를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관계의 개념속에서 파악하고, 가족문제에 대해 상담하고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체의 84.5%

가 가족문제를 상담하고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필요에 따라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65%정도만이 사회복지사가 실시하고있고, 나머지는 비전공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족상담 담당자의 자격에 관한 통계는 <표9>와 같다.

< 표9 > 가족상담 담당자의 자격

기관수=125    단위: %

구    분	종합복지관	부   녀	아   동	청 소 년	노   인	가   정	전   체
사회복지사	81.0	37.0	95.7	42.3	-	66.7	65.6
준 사회복지사	11.9	33.3	30.4	7.7	-	33.3	20.0
심리상담원	9.5	7.4	13.0	26.9	-	33.3	14.4
초빙전문상담원	16.7	7.4	0.0	19.2	-	16.7	12.0
전문인 자원봉사자	26.2	25.9	8.7	23.1	-	16.7	21.6
비전문 자원봉사자	14.3	7.4	0.0	3.8	-	16.7	8.0
행정요원/사무원	4.8	33.3	8.7	26.9	-	16.7	16.8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1991),p.43

가족문제상담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상담자들은 <표9>에서 보듯이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하고있다. 가족상담 또는 가족치료를 전공한 전공자가 부족하지만, 전문인 초빙, 전문인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인력과 지식측면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있다. 특히 종합복지관, 아동상담소, 가정상담소는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원, 초빙 전문상담원, 전문인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으로 가족상담에 임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담 요구는 많으나 적절하게 대처할 전문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것을 나타내기도한다.

다음은 가족상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찰하려고한다. <표 10>에 의하면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가족상담자는 대부분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 표10 > 가족상담에 관한 지식 습득 방법

단위: %

구 분	종합복지관	부녀	아동	노인	청소년	가정	전체
학교강의	63.8	16.7	29.3	100.0	34.0	20.0	38.4
훈련과정 참석	5.9	24.1	2.4	0.0	10.6	10.0	10.7
워크샵,세미나참석	8.7	11.1	12.2	0.0	8.5	20.0	10.3
유사직 교육	1.4	0.0	2.4	0.0	6.5	0.0	2.2
현직근무/관계서적	15.9	37.0	48.8	0.0	31.9	50.0	31.7
이론/기법 모듬	4.3	11.1	4.9	0.0	8.5	0.0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 여성개발원(1991), p.53

<표10>에 의하면 가족상담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훈련을 대학에서 전공한 비율은 38.4%에 불과하고, 32%정도는 상담직을 맡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며 상담업무를 실시하고있는 실정이며, 그 이외의 경우는 비정규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내담자의 가족상담에 관한 요구는 증가하는데 비하여 가족상담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과, 실무자를 위한 가족상담 교육과 훈련이 시급한 것을 나타내고있다고 본다.

#### 4. 가족상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

가족상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는 <표11>을 근거로할때 조사대상자 전체의 77%정도가 가족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필요성은 실제 문제가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당면하고있기 때문에 더욱 사실적인 요구라고 본다.

<표11> 상담실무자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정도

단위 : %

구 분	종합복 지관	부녀	아동	청소년	노인	가정	전체
가족상담의 필요성 인식정도							
매우필요	84.5	65.5	74.4	78.5	100.0	80.0	76.5
조금필요	15.5	35.0	25.6	17.6	0.0	20.0	22.7
전혀필요없음	0.0	0.0	0.0	3.9	0.0	0.0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필요이유							
개별상담만으로 문제해결 어려움	19.7	22.2	5.1	4.4	33.3	44.4	15.8
가정에 원인	39.4	38.9	43.6	42.3	66.7	22.3	40.2
가족에 개입필요	40.9	38.9	51.3	53.3	0.0	33.3	44.0
계	100.0	1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 여성개발원(1991),p.39

위의 표에서 가족상담을 필요로하는 이유를 볼때, 개인문제, 자녀문제, 부부문제 등 어떠한 형태의 문제이든 그 문제의 원인이 가정에 있다고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가족에게 개입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게나타났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기관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이론과 교육을 통하여 형성된것이 아니고, 실제 경험을 통하여 터득한 것이므로 더욱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시급한것을 강하게 표현하고있다고 본다.

## V. 결 언 : 가족치료 접근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한국 가족문제의 성향과 내용을 가능한 한 이론중심 보다는 실제적인 통계자료와 조사결과를 근거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한국가족구조, 가족기

능, 가족관계 간의 상관관계속에서 고찰하려고 하였다. 한국의 문화를 배경으로하고 있는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관계차원에서 가족문제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임상적 접근 특히 구조적 접근의 기초가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적 배경과 독특한 한국 가족문제의 성향을 이해할때 접근방법의 선택과 실제적 용상의 기술활용이 용이하고 보다 효율적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1. 연구결과 발견한 한국가족문제의 성향을 가족치료적 접근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족관계는 부부관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혼이후에도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있다. 이것은 한국의 부부관계는 남편중심적이며, 시부모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계속적으로 시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고있는 것을 볼 수있다. 가족치료의 개입에서 원가족에 관한 이해와 원가족과의 심리정서적인 분화에 관한 이해가 전제로 이루어져야함을 지적할 수있다.
- (2) 부부갈등의 가장 주요한 문제가 남편의 부정행위이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부부문제가 발생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여자들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적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하는 남편이 반드시 부인에게 애정이 없거나 이혼을 전제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한국의 가족문문화에 관한 이해를 필요로하는 측면이라고 본다.
- (3) 자녀문제 상담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것은 체계론적 관점에서볼 때 이것은 가족구조내에서 자녀문제가 가족의 증상으로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고, 부모의 지나친 염려와 과잉 반응으로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문제는 가족구조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정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 (4) 고부갈등은 계속적으로 주요한 가족문제가되고있다. 고부갈등은 동거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분가시에도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고부갈등의 원인은 부모와 자녀 특히 어머니와 아들간의 심리정서적인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것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분화의 미성숙보다는 효사상과 집을 중심으로하는 한국의 가족문화와 가치관을 근거로하는 가족

관이기도하기 때문이다. 고부갈등은 단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아들의 문제로 보아야한다.

- (5) 남편의 폭행, 학대, 주벽 등의 행동적 문제가 주요시된다.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들에게는 사회문화적인 원인, 개인적인 성격적 요인과 성장경험, 등의 원인을 들 수 있다.

심하게 구타와 학대를 받는 경우 자기존중감정의 파괴로 심리정서적 치료와 가족치료를 필요로하며, 남편 역시 심리정서적인 치료와 가족치료를 필요로 하고있다.

2.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가족치료접근을 위해 특히 초점을 두어야한다고 생각되는 가족치료 이론 및 주요개념을 제시하려고한다. 가족치료 접근방법은 크게 심리역동적, 구조적, 경험적, 전략적, 체계적, 행동적, 문제해결 중심적접근 방법으로서 분류할 수 있고, 각 접근법마다 강조하는 개념과 기법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체계론적 관점에서 각 접근을 볼 때 궁극적인 목적과 근본적인 개념이 일치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정한 접근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개념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족치료실시를 위한 실제적인 당면문제에 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의 가족관계를 이해하기위하여는 원가족과의 관계,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지식과 부부갈등, 고부갈등, 자녀문제에 가족치료적 접근을 하기위한 가족의 역사, 가족의 정서체계, 자아분화와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 (2) 한국 가족문제의 성향을 이해하기위하여는 가족을 중심으로하는 문화, 가족관, 윤리관, 부부관계에서의 역할, 지위, 세력의 배분, 관습, 의사소통 유형, 변화하는 가족관계변화 등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하여야 한다고 본다.
- (3) 지배적, 독재적, 가학적 성향과 순종적, 복종적, 희생적 성향과의 상호작용을 기초로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행동유형발달 과정에 관한 이론과 개념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 (4) 남자들의 상담요구가 증가하고있고, 특히 자녀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것은

가족치료접근에 남편과 아버지를 적극 참여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해 기여하게 할 수 있는 자원체계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본다. 따라서 가족구조내에서 기존의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개념과 지식을 근거로 접근하여야한다고 본다.

- (5)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성격차이와 가치관차이가 지적되었는데, 이것은 가족을 중심으로하는 지위, 역할, 세력배분, 기능 등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문제에 접근할 때 새로운 측면에서 생각하고 경험해보도록 하는 재구조화 또는 재정의(reframing/relabeling)에 관한 개념과 기법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 (5) 한국 부부관계와 부부문제에서 여자들이 자기존중감정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기존중감정의 중요성과 자기존중감정을 회복하는 이론과 가족치료기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을 대상으로 저항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삼각관계를 형성하거나, 감정을 투사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하고, 자녀문제로 표출되는 사례는 흔하다. 따라서 삼각관계와 정서적 투사와 관련된 이론과 개입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 (6) 청소년 가장가족에 관한 문제는 한국의 특이한 가족형태이며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 기능상에 복합된 문제를 가지고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는 표면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예측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가장가족에 접근하기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7) 내담자들의 문제, 경제, 교육수준이 다양해지고있다. 이것은 서비스의 다양화 필요성을 의미하고, 서비스의 종류와 질에따라 무료에서 유료의 다양화 필요성도 나타내고있다고 본다.
- (8) 내담자들의 상담욕구가 증가하고, 문제의 성향이 전문지식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과, 관련전문 영역간에 좀더 협동체계가 적극적으로 형성되어야한다고 본다. 가족상담 내지는 가족치료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많지만 좀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치료팀을 활용하

는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 (9) 가족치료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대학교육에만 의존하기에는 요구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며, 상담 및 가족치료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있다. 특히 현장실습과 지도감독이 필요한 특수성 때문이다.
- (10)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한국문화와 가족문제성향, 사회적 여건, 등을 근거로 하는 가족치료의 실험연구와 한국 가족치료이론 모델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김광일(1988), 가정폭력, 탐구당
- 김정옥(1993), "이혼원인의 실증적 연구",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 김창곤(1994), "한국가족치료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소고", 대한 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사랑의 전화(1993), 1992년 상담통계 분석
- 사랑의 전화(1994), 여성의전화 개원 1주년 기념보고서
- 서울시 중앙가정상담소(1991), 가정불화원인 년도별 추세, 미간행물
- 송성자(1985), 한국의 가족치료 연구,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송성자(1989),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홍익재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1992),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사회문화연구소
- 유영주(1990), 신 가족관계학, 서울:교문사
- 이광규(1981b), 한국가족의 심리문제:고부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일지사
- 이태영(1989), 한국의 이혼을 연구II,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 이효재(1978), 가족과 사회, 서울:진명출판사
- 이효재(1983), 가족과 사회, 서울:경문사
- 통계청(1992), 한국의 사회지표
- 차준구(1988), "아내구타의 현황", 김광일 편저, 가정폭력, 탐구당
- 청소년지도자육성회(1982), "상담을 통해본 아동학대"
- 대화정신건강 상담실(1993), 상담분석
- 한국 가족학 연구회(1992),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하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1990), 상담사건통계(1989.1-1989.12)
- 한국궤립조사연구소(1983),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 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백서
- 한국여성개발원(1991), 가족상담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Skolnick, S. && Skolnick, H.(1977), Family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